

다산포럼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원전 오염수 방출과 일본의 민주주의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일반 시민,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나 의학 방면의 전문가와 원전 종사 경험자들로부터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제기되고 있으며 활발한 대안 제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75년에 설립되어 50년의 역사를 지닌 원자력자료정보실(CNIC)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년을 계기로 설립된 원자력시민위원회 등이 그 중심에 있다. 이들 해양방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육상에서의 장기 보관과 모르타르 고체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간'과 '시간' 부족을 이유로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한 방대한 오염토 매설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거가 무너졌다. 그 방대한 부지에 저장하여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유효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양방출의 경제성을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을 잃었다. 2016년도 경산성 추산으로 17~34억엔의 비용에 52~88개월이었던 것이 현재는 1200억엔 이상의 비용에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해양방출을 강행하고 있다. 여기서 던져져야 하는 것이 "일본의 민주주의는 안녕한가"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예외 상태'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정치철학자들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오염수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임

박한 사태'와 그로 인한 '예외 상태'가 '오로지 해양방출'의 구실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이 '예외 상태'로 규정되면 정치적 결정의 정상적인 과정이 중단된다. 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다(칼 슈미트, Carl Schmitt). 그런데 예외 상태는 시간의 문제와 관련된다. 통치자들은 위험이 '임박'해 있다고 하여 예외 상태를 정당화한다. 그리고는 예외상태가 '일시적'이라는 것으로 이를 합리화한다. '즉시 대응해야 할 위험 앞에서 잠시' 민주주의의 중단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외 상태는 규칙이 되어간다(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 그러나 문제는 건너야 할 시간이 '잠시'가 아니라 거의 '항구적'이라는 사실이다(조르주 아감벤, George Agamben).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예외 상태는 예외 상태가 아니다.

항구적 예외 상태에서 일본의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강화를 구실로 '몹 없는 이들의 몹'으로서 '정치'(자크 랑시에르, Jacques Ranciere)를 배제하고 '치안'에 집중하여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평화헌법에 예외 상태를 선포한 것이 해양방출 개시를 확정된 것과 시기적으로 겹치고 있는 것은 그저 우연인 것일까? 암반처럼 굳건하다고 여겨지던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와 민주주의가 오랜 시간을 거쳐 어둡고 행해지고 있다. 한일관계가 끝모름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깊어진다.

NGO 칼럼

5월에는 오래 보자

다. 누군가 현존하는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관심(關心)'이라고 답하고 싶다.

우리 집에는 앵무새, 사슴벌레, 강낭콩 등 7개 종의 애완 동식물이 있다. 온통 자녀들이 돌보는 또 하나의 가족이지만 나에게 이들은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고, 생각을 나누며, 소통을 돕는 양육 조력자들이다. 앵무새(사랑이)는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씨 선생님이다. 아이들이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있을 때였다. "애들이 나중에 사랑이가 너희들의 미운 말씨를 계속 따라하면 어쩔 것 같니?"하며 소리를 흉내 내었다니, 모두 한바탕 크게 웃고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했다.

강낭콩(뿌족이)은 생명의 신비와 희망을 전해주는 꿈 선생님이요 아이들은 매일 강낭콩에 물을 주면서 잘 크고 있는지 혹시 어디 아프지 않은지 밤낮으로 살피며 함께 자란다. 그리고 잡자기 전에 아이들은 안방에 있는 식물 스투기(초록이)에게 '초록아 사랑해, 잘 자!' 속삭이며 불을 끈다. 이후 우리 가족 사이에 '사랑해, 잘 자!' 캠페인이 시작됐으니 초록이는 뛰어난 가족사랑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자녀와의 대화가 풍성해지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며, 자녀와 함께 부모도 성장해 가는 일상을 경험한다.

5월에는 아이들을 오래 보자. 그리고 자세히 보자. 예쁘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어느 시인처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에 대한 작은 관심은 정성이 담긴 엄마 밥상 가까이 화려하지 않지만 나날이 커져서 쌓여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지나주에는 첫째 딸 학부모 참관수업에 참석했다.

부모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뒤돌아보는 아이들의 수많은 눈동자 중에 내 아이와의 짧고도 강렬한 눈맞춤을 잊을 수 없다. 아이는 마법에 걸린 듯 금세 안정을 찾고 수업에 집중했다. 수업 끝자락에 소감을 나누면서 학생, 부모, 교사에게 박수를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처럼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 환경의 지지와 관심' 덕분이라 믿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아동과 교사의 권리 충돌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투철한 사명감으로 바르게 지도하시는 훌륭한 담임교사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성실하게 일구어가는 부모 그리고 옆에서 늘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학급친구가 있기에 대한민국 아동이 흔들리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내가 속한 굿네이버스는 2016년부터 격년주기로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 수준과 변화 추이를 점검한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4차)' 결과 우리 지역은 69.2점으로 21년(3차) 대비 1.2점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지자체 재정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제도적 노력과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가정-학교-지역사회' 모두가 현장에서 흘린 땀의 결실이라 생각하기에 내일이 빛나는 우리 교장(光州)의 미래가 기대되고,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아동행복 대한민국'이 설린다.

끝으로 김춘수 시인의 '꽃' 마지막 대목을 선물로 글을 마친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윤호 굿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 팀장

출근하는 길 담장 너머로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빨간 장미를 보면서 명나라 후기 격언서, 고금현문(古今賢文) 한 구절이 불현듯 떠올랐다. '꽃 한 송이 피었다고 봄이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피어야 비로소 봄이다.' 장미도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것처럼 가정의 달 5월에는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수많은 스승의 마음 곳곳에 웃음꽃 만발하는 봄이 오기를 기대한다.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송시, 김춘수 시인의 '꽃'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한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관계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른다. 자녀는 나에게 '꽃'이고 '우주'이다. 티 없이 고결하게 피어나는 신비요 그 자체만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한민국 아동에게도 영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너는 꽃이고 우주다.' 응조읍 출생 미신고 아동 사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적 신호, 끊이지 않는 아동 성범죄와 학대,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시대 부모이자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한 것만 같아 숙연해진다

기고

5·18민주화운동과 주먹밥

여나 훗날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가차 없이 무너져 내렸던 초가지붕을 닳은, 짚풀 같은 힘 없는 광주사람들은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고, 망월동 묘지에 영문도 모르고 묻히게 되었다.

나는 초가지붕이 사라져간 그때부터 조상들이 한옥에서 살면서 농사 지으며 손수 만들어 사용했던,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던져버린 민속품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민속박물관까지 세우기에 이르렀다.

2016년 비움박물관을 세우고 나서 5월 18일이 '세계 박물관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운명처럼 곁친 5·18이라는 숫자는 나를 전율케 했다. 삼십대에 내가 겪었던 그 무섭고도 무자비한 오월의 기억을 더듬으며 역사 속에서 맨주먹 하나 보태지 않고 방관자로만 살았던 것이 여든 살을 바라보는 박물관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아픈 오월이 오면, 그때 희생된 사람들의 의로운 삶의 무늬와 따뜻한 영혼의 빛을 안타까움과 한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기리려 했다. 그간 우리가 누렸던 자유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때 희생된 분들의 영혼의 힘이 때문이다.

비움박물관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연대의 정신을 이어 보고자 매년 5월 특별전시 기간에 주먹밥 나눔을 하고 있다.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사무치게 그리운 가난의 흔적들로 5·18민주화운동과 주먹밥의 파스함을 기리고 있다.

올해는 '짚풀 같은 사람들-삶의 무늬와 영혼의 빛'이라는 주제로 수백 점의 짚풀 공예품과 함께 5월을 맞이하고 있다. 또 전남대학교 국문과 대학원 교수 및 학생들이 쓴 여러 작품을 통해 5·18과 문학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를 연결하여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자연을 사랑하고 지구의 미래를 염려하는 한국의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5·18 행사 참여도 예정되어 있다.

전시 개막일인 지난 10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아 주먹밥을 나누며 전시를 관람하고 5월을 기억했다.

올해는 멀리 일본에서도 기별이 왔다. 동학농민운동을 지지하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광주민중항쟁을 기리기 위해 우리 비움박물관에 온다고 한다. 박물관 할머니는 이들과 함께 한없는 겸손과 뉘우침으로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주먹밥도 나눔 생각이다.

인권의 도시, 평화의 도시, 민주주의 도시 빛고를 광주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의 도시로 앞서가길 바란다.

"일천 구백 팔십년 오월/ 사람다운 사람끼리/ 짚풀 같은 광주 사람끼리/ 주먹에서 주먹으로 쥐어주던 따뜻한 주먹밥/ 권력에 눈 먼 독재 앞에/ 오직 사람다운으로만 맞서던 주먹밥/ 이미 세계적인 평화의 밭꾼으로/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빛나는 주먹밥/ 짚풀 같은 광주 사람들의 맨 몸의 큰 정신과/ 짚풀 같은 광주 사람들의 맨주먹의 빛나는 작은 힘/ 어찌 꿈엔들 잊을 수 있을까?"

社說

시험대 오른 GGM... '상생 정신'에 해법 있다

노·사·민·정 합의로 탄생한 광주글로벌 모터스(GGM)에서 노조가 출범하면서 상생형 일자리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GGM에 따르면 이 회사 근로자 140명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완료했다. 전체 근로자(660여 명)의 22% 수준으로, 만약 전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대표성을 인정받아 단체교섭이 가능하다.

노조가 아직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광주형 일자리 출범 당시 약속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GM 출범 당시 노사민정 각 주체는 차량 생산(누적) 35만대까지는 임금 등의 근무조건을 광주시·노동자·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누적 생산량이 12만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생산량 저조 전남어업 구조개선책 시급하다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근해 어선을 보유하고도 경남과 부산보다 어업 생산량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연구원은 잇그제 내놓은 '전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이슈리포트)에서 2023년 전국 어업 생산량은 총 95.6만톤으로 전년 생산량(88.9만t)에 비해 7.6%, 생산금액은 총 4조3673억 원으로 전년 생산금액(4조 430억 원)에 비해 8.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전남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금액이 2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남(15.5%), 부산(1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의 어업 생산량(17.6%)은 부산(23.6%), 경남(20.1%)에 이어 세번째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의 연근해 어선이 2만7010척으로 전국(6만4385척)의 42%에 달하고 경남(1만3589척), 부산(3342척)보다 월등히 많은 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전남의 어선 보

유 대수가 많은 데도 부산, 경남 등지에 비해 생산량이 크게 낮다는 의미다. 박은옥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남 지역의 어선이 노후한데다 소규모여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어 어선 현대화와 첨단기술 적용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전남 연근해어업은 오래전부터 수산자원 고갈과 선박 노후화 등으로 경보등이 커진 상태다. 그때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어선 감축, 수자원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다. 차체에 어업 구조 효율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선 감축, 감적 어업인에 대한 폐업지원 등 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어민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박·어구 현대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전남이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를 대표하는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

無等鼓

"도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난 교정소에도 못가고 벌벌 떨었다. 젊은 언니 오빠들은 잡아서 때린다는 말을 듣고 공수부대 아저씨들이 잔인한 것 같았다..."

광주 동산초등학교 6학년 김현경 양이 연필로 쓴 1980년 5월 19일(월) 일기다. 18일에는 '무서움', 19일에는 '공포'라는 제목을 붙였다.

"빠스 승강장으로 세워둔 비닐 지붕의 승강시설은 보이는 대로 길 가운데 바리케이드를 만들었고 서둘러 돌고개를 넘어서니 가로수를 톱질해서 양쪽으로 넘어뜨린 채 도로 차단을 해두었다."

당시 광주우체국 통신과장으로 근무하던 조한우 씨의 5월 21일 일기중 일부다. 도로 차단을 하기 위해 가로수를 넘어뜨린 돌고개를 비롯해 총장로와 수기동, 양동시장 등지의 상황을 눈에 본대로 기록했다. "오후 3시가 넘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왔다. 드디어 목포에도 나타났으니 조심히하고 아이들 내보내지 말라는 당부의 걱정들이었다. 나는 당황하고 불안했다. 목포에서도 광주 같은 사태가 생기면 만

약 어떻게 될까, 큰일이었다." 목포에 거주하던 주부 조한금 씨는 같은 날 일기에 광주에서 내려온 시민군 버스타량 등 당일 목포 상황과 심리상태를 꼼꼼하게 일기장에 담았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이다. 광주·전남 시민 5명이 기록한 5·18 일기장을 볼 수 있는 기획전시 '5월 18일 일요일 맑음'(-12월 1일까지)이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9층)에서 열리고 있다. 44년 전 5월, 초등학생을 비롯해 여고생, 주부, 광주체육국·천주교 광주대교구 직원 등 평범한 시민들이 일기를 썼다. 본대로, 들은 대로 광주·전남

의 그날그날 상황을 자신만의 일기장에 풀어냈다. 전시되고 있는 시민들의 일기를 통해 당시의 긴박감과 심리상태를 느낄 수 있다. 개인 일기이지만 '80년 5월'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초(史草)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5월 일기' 또한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44년 전, 시민들이 숨죽여가며 써내려간 일기장은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기록이다. 한줄 일기는 그렇게 역사가 됐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